

헤렘의 관점에서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행 5:1-11)

-여호수아 7:1-26과 사도행전 5:1-11의 본문 간 상관-¹⁾

박형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아간 사건과 연결하는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²⁾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자 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한다.³⁾

이 글의 목적은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의 관계를 재조

*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 1) 이 글은 2004년 9월 영국신약학회(British New Testament Conference)의 사도행전 세미나(Acts Seminar)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번역하여 2007년 3월 한국신학정보연구원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다. 세미나에서 좋은 질문과 제안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헤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Hyung Dae Park, *Finding Herem?: A Study of Luke-Acts in the Light of Herem*,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357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7) 참고.
- 2) 예. E. Trocmé, *Le «Livre des Actes»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7); Luke Timothy Johnson, *The Acts of the Apostles*, SP 5 (Collegeville: Liturgical, 1992).
- 3) 예, J. Duncan M. Derrett, "Ananias, Sapphira, and the Right of Property,"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I* (Leiden: Brill, 1977), 193-201; Alfons Weiser, *Die Apostelgeschichte: Kapitel 1-12*, ÖTK 5/1 (Gütersloh Würzburg: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1); Brian J. Capper, "The Interpretation of Acts 5.4," *JSNT* 19 (1983), 118-131; Rudolf Pesch, *Die Apostelgeschichte*, EKKNT 5 (Zürich: Benziger, 1986).

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제시된 두 본문 간의 차이를 점검할 뿐 아니라 새로이 지적할 가치가 있는 유사점이나 상이점도 찾아볼 것이다. 또한 사도행전 5:1-11과 관계한다고 제시되는 레위기 10:1-6, 열왕기 상 14:1-18, 1QS 6.13-25, 『수산나』 45, 52-59에 대해서도 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여호수아 7장보다 나은 자료들인지 평가해 볼 것이다.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 바로 ‘헤렘’이다. 여호수아 7장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이 헤렘이고 학자들이 지적하는 두 본문의 차이점의 핵심에도 헤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린버그(M. Greenberg)에 따르면, 헤렘이란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서 금지되었거나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일반적인 접촉이나 사용으로부터 구별된 상태’이다.⁴⁾

1. 학계의 동향

오랫동안 사도행전 5:1-11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이야기와 연결되어졌다. 『열두 사도의 가르침』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 게하시, 유다와 함께 제8계명을 어긴 예로 제시된다.⁵⁾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d. 407)]은 고린도 전서 4:3-4에 관한 설교에서 두 부부를 유다, 게하시, 아할[아마도 아간; 참고, רָבָּ(대상 2:7)], 아합과 함께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사람’의 예로 든다.⁶⁾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개념적으로 아간과 연결하는 앞의 시도와 달리 레익(Kirsopp Lake)과 카드버리(Henry J. Cadbury)는 여호수아

4) M. Greenberg, “HEREM,” *EncJud* 8, 344-355 (344).

5) *The Teaching of the Twelve Apostles* 1.2 (ANF 7:466).

6) Chrysostom, *Homilies on First Corinthians* 11.9 (NPNF¹ 12:62).

7:1과 사도행전 5:2, 3에서 함께 나오는 단어인 ‘노스피조마이’(νοσφίζομαι, 자신을 위해 떼어두다.)에 근거하여 두 본문을 연결한다.⁷⁾ 이후 머누(Philippe H. Menoud)는 이 단어에 근거하여 두 본문을 연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⁸⁾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아나니아와 삽비라)은 새 시대의 문턱에서 바쳐진 것과 함께 치심을 받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간이 그 옛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입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치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5:1-11의 이야기는 아간의 이야기와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⁹⁾ 이러한 주장들에 힘입어 브루스(F. F. Bruce)는 1954년 그의 주석에서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이야기의 역할은 여호수아서에서 아간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치와 같다.”고 하면서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에노스피산토 아포 투 아나쎬마토스’(ἐνοσφίσαντο ἀπὸ τοῦ ἀναθέματος), 수 7:1]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에노스피사토 아포 테스 티메스’(ἐνοσφίσαστο ἀπὸ τῆς τιμῆς), 행 5:2]를 비교한다.¹⁰⁾ 이듬해 슈미트(J. Schmitt)는 사도행전 5:1-11을 사해 사본과 연결지으면서도 여전히

7) Kirsopp Lake and Henry J. Cadbury,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Part I: The Acts of the Apostles*, F. J. Foakes Jackson and Kirsopp Lake, eds., vol IV: *English Translation and Commentary* (London: Macmillan, 1933), 50.

8) Philippe H. Menoud, “La Mort d’Ananias et de Saphira (Actes 5. 1-11),” Maurice Goguel ed., *Bibliothèque Theologie, Aux Sources de la Tradition Chrétienne: Mélanges offerts à M. Maurice Goguel à l’Occasion de Son Soixante-Dixième Anniversaire*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1950), 146-154 (154 n.1).

9) Menoud, “Mort,” 154.

10) F. F. Bruce,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Acts: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ew Lond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54), 110, 110 n.5. 이 책에서는 여호수아 7:1의 ἐνοσφίσαντο를 ἐνοσφίσαστο로 적고 있다. 사소한 보이어나 내용과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실수이다.

노스피조마이에 기초하여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사이에는 ‘분명한 암시’가 있음을 인정한다.¹¹⁾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이 두 사건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다.¹²⁾ 그러나 1957년 트로흐메(Étienne Trocmé)는 두 이야기에 “드문 단어가 사용”되나 차이점이 더 많다고 지적한다.¹³⁾ 그가 지적한 세 가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거기(수 7)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지는 ‘바쳐진 것’이라는 개념에는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배제한다.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아간과 그의 가족)에게 적용된다. 범죄자를 찾거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형이 집행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5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¹⁴⁾

트로흐메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누가를 초대 기독교인들에 관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편집한 사람으로”¹⁵⁾ 보는 헨헨(Ernst Haenchen)은 그의 1965년도 주석에서 트로흐메가 지적한 차이점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언급한다.¹⁶⁾ 그

11) J. Schmitt, “Contribution à l’Étude de la Discipline Penitentielle dans l’Église Primitive,” A. Dupont-Sommer, ed.,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Colloque de Strasbourg 25-27 Mai 1955*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7), 93-109 (105).

12) Richard S. Ascough, “Benefaction Gone Wrong: The ‘Sin’ of Ananias and Sapphira in Context,” Stephen G. Wilson and Michel Desjardins, eds., *Text and Artifact in the Religions of Mediterranean Antiquity*, Studies in Christianity and Judaism 9 (Ontari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91-110 (93 n.4)을 보라.

13) 흥미롭게도 트로흐메(Trocmé, Livre, 198)는 여호수아 7:1의 ἐνοσφίαστο와 사도행전 5:2의 ἐνοσφίαστο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없다.

14) Trocmé, *Livre*, 198.

15) Steve Walton, “Acts: Many Questions, Many Answers,” Scot Mcknight and Grant R. Osborne, eds., *The Face of New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Recent Resea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229-250 (229).

리고 헨헨의 언급은 브루스의 두 번째 사도행전 주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¹⁷⁾ 이런 상황에서 해리슨(Everett F. Harrison)은 두 사건을 병렬시키는 것을 “조야”하다고 평가하고,¹⁸⁾ 마르게라(Daniel Marguerat)도 트로흐메의 세 가지 차이점을 받아들이면서 사도행전 5:1-11을 “창세기 3장에 대한 하나의 미드라쉬”로 본다.¹⁹⁾

트로흐메의 주장이 있는 후, 존슨(Luke Timothy Johnson)은 트로흐메의 세 가지 차이점에 한 가지를 더해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의 “중요한 차이점” 네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기독교 공동체 소속 재산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일컬어지지도 않을뿐더러 헤렘 상태도 아니다. 둘째, 베드로와 대면해서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증언한다. 셋째, 공동체가 속여서 취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되지 않는다. 넷째,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가 돌을 던지지 않았고 단지 사도의 예언이 있었을 뿐이다.”²⁰⁾ 네 가지 중 두 번째 것이 추가된 차이점이다. 트로흐메의 차이점이 여호수아 7장을 중심으로 언급된 것이라면 존슨의 차이점은 사도행전 5:1-11을 중심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러한 존슨의 네 가지 차이점에 대해 워더링톤(Ben Witherington III)은 “균형잡힌 평가”라고 한다.²¹⁾

결국 두 본문의 차이점들이 이렇게 강조되는 가운데, 최근 사도행전 주석을 쓴 예벨(Jacob Jervell)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관

16) Ernst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Bernard Noble et al.,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1971), 239.

17)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rd ed. (Grand Rapids: Eerdmans, 1990), 162.

18) Everett F. Harrison, *Acts: The Expanding Church* (Chicago: Moody, 1975), 94.

19) Marguerat, “Mort,” 222.

20) Johnson, *Acts*, 92.

21) Ben Witheringto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Carlisle: Paternoster, 1998), 214 n.70.

런하여서 여호수아 7장은 각주로 간단히 처리하며,²²⁾ 가벤타(Beverly Roberts Gaventa)도 두 사건 사이에는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말한다.²³⁾

계속해서 지적되는 차이점으로 두 본문의 관계가 소원(疏遠)해지자 어떤 학자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경이 될 만한 문헌들을 찾고자 시도한다. 데렛(J. Duncan M. Derrett)은 그의 글의 “부연 설명”에서 사도행전 5:1-11의 평행 본문으로 레위기 10:1-6을 제시한다.²⁴⁾ 바이저(Alfons Weiser)는 구약(레 10:1-5과 왕상 14장)과 다른 유대 문헌과 헬라 문헌 중 “특별한 심판 기적”을 포함하는 본문들을 제시한다.²⁵⁾ 쉬미트나 트로흐메처럼²⁶⁾ 아나니아 이야기를 쿰란 문헌 안에서 이해하려 한 카퍼(Brian J. Capper)는 아나니아의 죄는 “여전히 자기 소유지만 수련생으로서 자기 재산을 공개하여 제출할 때 속여 공포한 자의 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²⁷⁾ 페쉬(Rudolf Pesch)는 사도행전 5:1-11을 『수산나』와 비교하기 시작한다.²⁸⁾ 오톨(Robert F. O’Toole)은 누가행전 안에서 평행 본문을 찾아 제시한다.²⁹⁾ 하발라(Henriette Havelaar)는 카퍼의 주장을 받아

22) J. Jervell, *Die Apostelgeschichte*, KEK 3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98), 196 n. 510.

23) Beverly Roberts Gaventa, *The Acts of the Apostles*, ANTC (Nashville: Abingdon, 2003), 103.

24) Derrett, “Ananias,” 201.

25) Weiser, *Apostelgeschichte*, 140.

26) Brian J. Capper, “«In der Hand des Ananias...» Erwägungen zu 1 QS VI, 20 und der Urchristlichen Gütergemeinschaft,” *Revue de Qumran* 47 (1986), 223-236.

27) Capper, “Interpretation,” 128.

28) Pesch, *Apostelgeschichte*, 196-197.

29) Robert F. O’Toole, “‘You Did Not Lie to Us (Human Beings) but to God’ (Acts 5,4c),” *Bib* 76 (1995), 182-209.

들이면서 동시에 헬라 문헌 중에서도 연관 본문을 찾아 제시한다.³⁰⁾

이러한 학계의 동향을 생각할 때, 트로호메와 존슨이 지적하는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강조하는 두 본문의 차이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작금의 학계의 동향을 거슬러 두 본문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오경 안에 있는 자발적 헤렘에 관한 법³¹⁾

트로호메가 첫 번째 차이로 지적한 내용 즉, “거기(수 7)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바쳐진 것’이라는 개념에는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정확히 배제한다.”³²⁾는 주장은 적절한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모세오경에 있는 자발적 헤렘의 경우들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레위기 27:28-29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헤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וְהָיָה) 그 물건(וְכָל-הָאֲשֵׁר)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발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וְכָל-הָאֲשֵׁר)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וְהָיָה אִשְׁרֵי הָאָדָם מִן-הָאֲדָמָה)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³³⁾ 이 구절에는 헤렘의 명사형이 세 번이나 주어로 사용되고 있고 동사 하나는 히필형이고 다른 하나는 호팔형이다. 다시 말해 이 구절에는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הָרֵמ**의 세 가지 형태가 함께 쓰인다.

30) Henriette Havelaar, “Hellenistic Parallels to Acts 5.1-11 and the Problem of Conflicting Interpretations,” *JSNT* 67 (1997), 63-82.

31) 필자는 누가가 구약을 본 관점에서 구약을 읽는다. 1세기 관점에서 구약에 대한 역사 비평적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2) Trocmé, *Livre*, 198.

33) 이후 한글 성경을 인용할 때는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사용한다.

이 구절 중 29절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학자들은 28절의 헤렘과 29절의 헤렘을 구별하여 이해한다. 칼리쉬(M. M. Kalisch)는 “첫 번째 서원은 성전 봉사를 위해 사람을 개인적으로 양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적인 이유로 지도 권력이 수행한 헤렘”이라고 말한다.³⁴⁾ 더 나아가 드라이버(S. R. Driver)와 브렉켈만(C. H. W. Brekelmans)은 위 구절 중 29절만을 어간이 같다는 이유로 출애굽기 22:20과 연결한다.³⁵⁾ 그러나 29절은 앞 절에 있는 자발적 헤렘의 예 가운데 사람에게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28절과 29절 모두 매우 드문 표현인 ‘콜 헤렘’(קול־הֵרֵם)이 주어진 것을 보면 28절과 29절의 헤렘은 한 가지 종류의 헤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³⁶⁾

레위기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어떤 것을 어떻게 드릴 지에 대해, 또한 드리진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한다. 여러 헌물 중 한 가지 형태로 제시된 헤렘은 다른 헌물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드리되 완전히 드리야 하는, 드리는 자의 온전한 신실함이 요구되는 헌물이다. 26절과 28절에 있는 ‘오직’(וְכִלְיָ)이란 단어로 이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레위기에서 단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는 27:26에서는 첫 소산은 드리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물이 아니라 반드시 드리야 하는 예물임을 강조한다. 첫 소산은 이미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27:28의 ‘오직’은 부정한 동물의 첫 새끼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드리진 헤렘은 팔 수도, 속할 수도

34) M. M. Kalisch, *A Historical and Crit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th a New Translation: ספר־לֵוִי-Leviticus II* (London: Longmans, 1872), 633.

35) S. R. Driver, *The Book of Leviticus: A New English Translation* (Leipzig: Hinrichs, 1904), 104; C. H. W. Brekelmans, *De Herem in het Oude Testament* (Nijmegen: Centrale Drukkerij, 1959), 53.

36) 구약에서 이 표현은 다섯 번만 나온다. 레 27:28 (2x), 29; 민 18:14; 겔 44:29.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헌물로서의 헤렘은 팔수도 속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³⁷⁾

그러므로 레위기 27:28-29에 있는 헤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로서의 헤렘을 가리킨다. 비록 드러진 후에는 매우 엄격한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드리는 것 자체는 선택할 수 있기에 선택적인 헌물이다. 이 헌물은 드러진 후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된다(27:28).

민수기 18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의무(1-7절)와 이들을 지원하는 수단(8-32절)이 소개된다.³⁸⁾ 이 중 14절은 모든 헤렘이 여러 예물(8-11, 19절)과 첫 소산(12-13, 15-18절), 십일조(21-32절)와 함께 제사장들은 지탱하는 수단이 됨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מִנְחָה)은 네 것이 되리라.” 이 절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מִנְחָה이란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민수기 18:14과 레위기 27:28-29의 헤렘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둘 다 헌물로서의 헤렘임이 틀림없다. 여러 학자들 또한 두 본문을 연결한다.³⁹⁾ 민수기 18:14을 통해 자발적으로 드러진 모든 헤렘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른 예물들의 경우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부분만을 취할 수 있으나 헤렘은 전체를 취하게 된다. 드린 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기 때문이다.

자발적 헤렘은 의무가 아니기에 드린 자는 의무 이행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더구나 속죄제도 아니므로 속죄의 유익도 없다. 단지

37) Richard D. Nelson, “Herem and the Deuteronomistic Social Conscience,” M. Vervenne and J. Lust, eds., *Deuteronomy and Deuteronomistic Literature*, BETL 133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39-54, 45 n. 27.

38) Eryl W. Davies, *Number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183-184.

39) 예, Davies, *Numbers*, 189; Gordon J. Wenham, *Number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Leicester: IVP, 1981), 144.

드릴 뿐이다. 그리고 드린 후엔 절대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된 이 헌물은 제사장이 사용한다. 구별의 과정에서 영육분리의 죽음이 수반된다. 이 죽음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레 27:29). 죽은 사람을 어떻게 성전고에 두어 제사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 헌물로 드린 사람을 어찌하여 죽인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 레위기 27:28-29는 여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예를 찾기 힘든 본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레위기 27:28-29와 민수기 18:14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헤렘 안에는 ‘임의로 드린다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⁴⁰⁾ 그러므로 여호수아 7장에 자발적인 헤렘이 존재한다면 트로흐메가 지적하는 첫 번째 차이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신명기에 있는 당위적 헤렘의 법

여호수아 6-7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신명기에 있는 당위적 헤렘에 대한 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6-7장을 이해하기 위해 신명기 7; 13:12-18(13-19, MT); 20:1-18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명기 7장에서 **הָרָם**은 동사 형태로 2회(2절), 명사 형태로 2회(26절) 나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נתן)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תְּהַרְמֵם תְּהַרְמֵם) 것이라.”(2절) 여기서 ‘헤렘시키라.’는 동사는 히필 미완료와 함께 히필 부정사 절대형이 쓰인다. 그러므로 ‘반드시 헤렘시키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⁴¹⁾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

40) Trocmé, *Livre*, 198.

41)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585; Jeffrey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וְאַתָּה תִּירָא) 심히 미워하라(וְהִתְעַבְבְּתָּ) 그것은 진멸 당할 것(וְהָרַח)임이니라.”(26절). 이 절에서도 피엘 부정사 절대형이 미완료와 함께 쓰이면서 내용을 강조한다. 당위적으로 드러야 하는 헤렘으로서의 가나안 7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⁴²⁾ ‘가증하다(וְהוּעֵבָה).’⁴³⁾ 이와 같이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로 인해 당위적으로 헤렘되어야 할 대상들은 가증하며 이러한 헤렘의 특성은 13:14(13:15, MT)과 20:18의 헤렘에도 적용된다. 특히 7:26의 내용을 통해 당위적 헤렘을 취하는 경우 취하는 자가 곧 당위적 헤렘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신명기 7장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과 그들의 우상들을 다시 말해,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들을 헤렘시키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7족속에 속한 동물들이나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는 신명기 7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1-18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보통 전쟁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탈취한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다(20:14). 하지만 예외가 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כָּל־נְשָׁמָה)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헛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וְהָרַחְמָם תְּהָרַחְמָם)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20:16-17). 이어지는 족속들의 이름을 통해 “호흡 있는 자”가 사람들만을 가리킨다고 추론할 수 있다.⁴⁴⁾ 칠십인역에선

Publication Society, 1996), 472 참고.

42) “וְהוּעֵבָה,” BDB, 1072.

43) “וְהוּעֵבָה and תְּעַבְבָּה,” HALOT, 1703.

44) J. A. Thompson,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호흡 있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엠프네오’(ἐμπνέω)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오직 사람들을 가리킨다(수 10:28, 30, 35, 37, 39, 40; 11:11(2회), 14; 지혜서 15:11]. 이와 함께 사람들 외의 것을 헤렘시키는 경우엔 족속 이름과 다른 표현들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호흡 있는 자”가 사람들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예, 민 21:2; 수 6:17; 삼상 15:3). 그러므로 신명기 7:2, 26의 헤렘이 가나안 7족속 사람들과 우상들에게 적용되며 그들의 가족이나 다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명기 20:17에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헤렘 명령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명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가나안 7족속 헤렘은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당위적인 헤렘이다.

신명기 13:12-18(13-19, MT)은 어떤 성읍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유혹이 있고 거민들이 유혹에 넘어갈 경우 그 성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규정한다.⁴⁵⁾ 이런 일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묻고 살펴,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거민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헤렘시켜야(מְחַרְמֵם, 15절) 한다. 이 모든 것들엔 “생축”(15절)도 “빼앗아 얻은 물건”(16절)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당위적인 헤렘도 자발적인 헤렘과 같이 대상에 제한이 없다.

정리하면, 신명기 7, 13, 20장에는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헤렘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성읍에 적용되는 헤렘 과정이 있다. 두 과정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엄격한 법이 적용된다. 가나안 7족속의 경우엔 사람들만 헤렘시키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엔 생축과 물건까지 헤렘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London: IVP, 1974), 223.

45)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위적 헤렘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을 보여주는 율법으로 출애굽기 22:20(22:19, MT)과 연관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מְחַרְמֵם).’

4. 여호수아 6-7장에 적용된 헤렘법⁴⁶⁾

여호수아서에선 여리고에서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헤렘법의 적용이 시작된다. 신명기 7:2, 26과 20:17에 따르면,⁴⁷⁾ 사람들과 우상들만 당위적으로 헤렘이 되면 된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여호수아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6:17)고 명령한다.⁴⁸⁾ 사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앞의 명령을 내리기 전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פָּרַח)”(6:2)⁴⁹⁾ “붙였다.”는 표현은 신명기 7:2에서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신명기 7:2, 26과 20:17을 근거로 여리고 거민들과 우상들만 헤렘시키고 생축들과 다른 물건들은 전리품으로 취하라고 했어도 율법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⁵⁰⁾

46) 여호수아서에서 פָּרַח은 27회 나온다. 특히 6-7장에 14회 집중해서 나온다 [6:17, 18(4회), 21; 7:1(2회), 11, 12(2회), 13(2회), 15].

47) Joel S. Kaminsky, “Joshua 7: A Reassessment of Israelite Conceptions of Corporate Punishment,” Steven W. Hollway and Lowell K. Handy, eds.,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s for Gösta W. Ablströ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315-346 (329-331).

48) Gordon Mitchell, *Together in the Land: A Reading of the Book of Joshua*, JSOTSup 13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52.

49) 이 단어는 당위적 헤렘과 다음 본문에서 연관된다. 신 7:2, 16, 23, 24; 20:16.

50) Daniel E. Fleming, “The Seven-Day Siege of Jericho in Holy War,” Robert Chazan, William W. Hallo and Lawrence H. Schiffman, eds., *Ki Baruch Hu: Ancient Near Eastern, Biblical, and Judaic Studies in Honor of Baruch A. Levine* (Winona Lake: Eisenbrauns, 1999), 211-228 (214); Joseph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B 31 (London: Doubleday, 1998), 319.

이렇게 신명기 20:14-18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헤렘시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경고를 덧붙인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6:18). 이 경고는 신명기 7:26을 생각나게 한다.⁵¹⁾ 또한 여호수아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여호와께 거룩하다 일컬은 후, 이것들을 “여호와의 공간에 들일지니라”라고 명한다(6:19).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6:21)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공간에” 둔다(6:24).

여호수아의 명령 중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당위적인 헤렘 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우양과 나귀, 은, 금, 동, 철 기구들에 대한 것은 자발적인 헤렘 명령으로 볼 수 있다.⁵²⁾ 성전고에 넣어질 것들을 가중하다고 하지 않고 거룩하다고 한 점도 이것들을 예물로서의 자발적인 헤렘과 연결한 근거가 된다.⁵³⁾ 이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자발적 헤렘 명령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합법적이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려 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레위기 27:28과 민수기 18:14을 통해 짐작컨대 제사장을 위해 성전고에 두도록 하였을 것이다.⁵⁵⁾

51) Kaminsky, “Joshua,” 331.

52) Mitchell, *Together*, 64; L. Daniel Hawk, *Joshua*,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and Poetry (Collegeville: Liturgical, 2000), 102.

53) Nelson, “Herem,” 43.

54) 레위기 27:28에 따르면 자발적 헤렘은 소유한 자가 드리야 합법적이다.

55) Jerome F. D. Creach, *Joshua*, IBC (Louisville: John Knox, 2003), 64-65.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도움 때문이었다면 아모리의 다섯 왕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엔(10:12-14) 자발적 헤렘을 더 드렸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때는 당위적인 헤렘법만 수행했기 때문이다(10:20, 34-37). 요세푸스(Josephus)나 칼빈(John Calvin)이 제안하듯 여리고가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이었기에 자발적 헤렘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⁵⁶⁾ 하지만 생축도 여리고에 있던 소유들도 첫 소산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발적 헤렘을 드리는 법에 따른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리고 성의 헤렘에는 당위적 헤렘뿐만 아니라 자발적 헤렘도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여호수아는 당위적 헤렘이 되었어야 할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헤렘시키지 않고 살리라고 명하고(6:17)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을 특별히 보내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6:22). 이 명령은 수행되었다(6:23, 25). 더욱이 본문에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한 점이 강조된다(6:25). 라합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헤렘되지 않은 이유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겼기 때문이다(6:17, 25). 여기서 당위적인 헤렘의 구속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이러한 당위적 헤렘의 특성은 자발적 헤렘의 특성과 비교된다. 레위기 27:28에 따르면 자발적 헤렘의 경우 팔거나 대체하거나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⁵⁷⁾

56) Josephus, *Ant.* 5. 26 and *J. W.* 4. 459;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Henry Beveridge,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49), 95; Greenberg, “HEREM,” 347; Mitchell, *Together*, 61; Creach, *Joshua*, 63.

57) Creach, *Joshua*, 66.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 사건은 자발적 헤렘을 취한 아간이 당위적 헤렘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장은 아간보다는 이스라엘의 헤렘법을 어긴 죄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강조로 시작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בָּרָח)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בָּרָח)을 취하였음이라⁵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7:1).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쾨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בָּרָח)이 됴이라 그 바친 것(בָּרָח)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מָחַשׁ)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7:12).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는 것이다(7:15).⁵⁹⁾ 여호수아의 경고(6:18)와 하나님의 말씀(7:12)에 따르면 이스라엘 진 전체가 당위적 헤렘이 되었어야 했으나,⁶⁰⁾ 하나님은 당위적 헤렘이 되어야 할 대상을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으로 한정하신다.

아간이 취한 것은 처음엔 자발적 헤렘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그에게 속한 것들은 이스라엘 안의 당위적 헤렘 과정에 대한 법(신 13:12-18)과 유사하게 처리된다.⁶¹⁾ 차이가 있다면 칼이 아니라 돌로 죽임을 당한 점이다. 아간이 취한 것은 처음엔 자발적 헤렘으로 성전

58) 아간은 불에 태워야 했던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하나와 성전고에 넣어야 했던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취한다(7:21).

59) 카민스키(Kaminsky, “Joshua,” 337-338)는 아간의 소유까지 헤렘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사람들도 때로 소유로 취급된다. (2) 아간의 죄가 너무나 터무니없었다. (3) 아간과 가족들은 그들의 가족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60) 여호수아 7:12에 관해 다음을 참고하라. Kaminsky, “Joshua,” 337.

61) Mitchell, *Together*, 75.

고에 두었어야 했으나 이제 그것들은 아간과 함께 당위적 헤렘이 되어 성전고에 두지 않고 불살라진다.⁶²⁾

정리하면, 여호수아 6-7장에는 당위적 헤렘과 자발적 헤렘이 섞여 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신명기 7장, 레위기 27:28-29, 민수기 18:14의 헤렘법을 적용하는 명령을 내린다. 사람들은 당위적 헤렘으로, 생축과 물건들은 자발적 헤렘으로 처리된다. 자발적 헤렘 중 생축과 불에 탈만한 것들은 태우고, 은금동철 기구는 성전고에 넣는다. 사람들 중 라합과 그와 동거하는 자들은 헤렘 대상에서 면제된다. 모든 것이 명령대로 처리된다. 그러나 아간은 율법을 따라 본인이 취할 수 있었던 것들 몇을 헤렘시키지 않고 취한다. 이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상태가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다. 이유를 묻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바쳐진 것을 취한 자와 그에게 속한 것들에 대한 처리를 명하신다. 아간에 대한 처리에서 자발적 헤렘의 매매·대체·대속 불가능성(레 27:28-29)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더욱 엄격한 헤렘 처리법(신 13:12-18)을 상기시키신 것으로 보인다.

5.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의 차이점

이미 앞에서 헤렘 안에는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트로호메의 첫 번째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제 오경 내의 헤렘법과 여호수아 6-7장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먼저 트로호메와 존슨이 지적하는 차이점들의 실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로호메에 따르면 여호수아 7장의 경우 처벌 대상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처벌 시행의 주체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⁶³⁾ 존

62) 사본상 차이에 대해서는 Kaminsky, "Joshua," 319 n. 13; Nelson, *Joshua*, 98 참고.

슨은 사도행전 5:1-11의 경우 처벌 대상과 관련하여 “(한 개인이) 속여서 취한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벌 시행의 주체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공동체가 돌을 던지지 않았고 단지 사도의 예언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⁶⁴⁾ 과연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 사이에는 처벌 대상과 처벌 시행 주체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또한 존슨이 지적하듯이 아간은 진실을 말했으나 삽비라는 거짓을 말했는가?⁶⁵⁾

이미 학자들이 지적한대로 여호수아 7:1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묘사한 단어와 사도행전 5:2, 3에서 아나니아의 죄를 지적한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다(*νοσφίζομαι*).⁶⁶⁾ 이 단어가 구약 칠십인역에서 한 번만 나오고 신약에서는 세 번만 나오는 것(행 5:2, 3; 딤후 2:10)을 고려할 때 이 단어에 근거한 두 본문의 연결은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런데 이 단어의 주어는 각각 누구인가? 여호수아 7:1에서 이 단어의 주어는 3인칭 복수로 이스라엘이다[*ἐνοσφίσαντο* (עֲנִיּוּ)].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을 강조하신다(7:11-13).⁶⁷⁾ 이스라엘의 죄가 지적된 후 아간의 죄가 언급된다. 여호수아 7장에서 첫 번째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계가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아간과 그의 소유와 연관된다. 사도행전 5:1-2에서도 아나니아의 죄가 먼저 지적된 후 삽비라의 죄가 언급된다. 아나니아의 죄를 ‘노스피조마이’로 설명한 반면 삽비라의 죄는 ‘원오이다’(σύνουιδα, 지식을 공유하다)로 표현한다. 첫 번째 죽음은 아나니아와, 두 번째 죽음은 삽비라와 관계된다.

63) Trocmé, *Livre*, 198.

64) Johnson, *Acts*, 92.

65) Johnson, *Acts*, 92.

66) Lake and Cadbury, *Beginnings*, 50; Bruce, *Commentary*, 110; Hawk, *Joshua*, 111 n. 4.

67) Mitchell, *Together*, 67-69; Creach, *Joshua*, 71.

아이성과의 첫 전투 때에 죽은 36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자신들의 상태를 설명할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36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다(수 7:5).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ἵνα) 멸망시키려” 하신 것으로 묘사한다(7:7). 또한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다고 말한다(7:8). 여호수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멸 위기에 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이시니 살 가망이 없다.

이 때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7:11). 하나님은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둔 주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신다. 햄린(E. John Hamlin)은 이처럼 훔친 물건을 자기 기구에 두는 것이야 말로 “행위 거짓”이라고 하면서 “거짓(사기)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백성을 속이는 것(레 19:11)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거나(수 24:27) 말(렘 5:12)과 행위(사 59:13)로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⁶⁸⁾ 햄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했으나 거짓을 자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않았다.

반면 아간에게는 진실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답한다(수 7:19-21). 얼핏 보기에 아간은 진실을 말한 듯하다. 그러나 호크(L. Daniel Hawk)는 아간은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아간은 이스라엘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금지된 것을 들여왔을 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숨겼다. 이 사실을 비밀로 해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하였다...아간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질문(20-21절)

68) E. John Hamlin, *Inheriting the Lan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oshua*, I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59-60.

에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앞에 자복하지도 않는다. 다만 여호수아가 하지도 않은 책망을 인정하면서 대답을 시작한다.”⁶⁹⁾ 또한 아간은 자신에게 제비가 떨어지기 전 네 번이나 자신이 훔친 것을 자백할 기회가 있었으나 침묵한다(16-17절). 그의 침묵도 일종의 거짓말로 볼 수 있다.⁷⁰⁾ 특히 7:21에서 아간은 자신이 취한 것이 “노략한 물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마도 아간은 율법에 의하면 자신이 노략물로 취할 수 있는 물건을 자발적으로 험담시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⁷¹⁾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말한 후(7:25), 아간은 죽어 돌에 묻히고(7:26 상) 이스라엘의 문제는 해결되며 이스라엘이 땅을 얻는 과정은 지속된다(7:26 하-8:29).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점이 있다. 첫 번째 죽음과 연관된 아나니아에게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의 죄가 기술된 것처럼(수 7:10-15), 베드로에 의해 아나니아의 죄가 기술된다(행 5:4-5).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가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라고 밝힐 때 아나니아는 죽는다. 세 시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삽비라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고 묻는다(5:8). 삽비라가 거짓으로 답하자 베드로는 삽비라가 곧 죽을 것임을 알린다(5:9). 삽비라는 죽고 장사되며(5:10)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진은 지속된다(5:11-16).

두 본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교를 통해 트로흐메와 존슨이 지적

69) Hawk, *Josua*, 120-121.

70)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ua*,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28.

71) יהיה ו לשלל에 대해서는 Mitchell, *Together*, 77-81 참고.

하는 차이점을 살펴보자. 먼저 처벌 대상에 대한 그들의 지적은 ‘이스라엘:아나니아, 아간:삽비라’로 된 구조를 ‘아간: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보아 생긴 차이점이다.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질책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지 아간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간의 죄 때문에 그의 가족들까지 죽었으므로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아간과 그의 가족)에서 적용”되지만 사도행전 5:1-11에서는 죄지은 사람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었다는 트로흐메의 생각은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⁷²⁾ 아간의 예는 삽비라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아나니아의 예는 이스라엘과 연결하여 봄이 적절하다. 트로흐메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5:1-11에서는 아나니아가 “속여서 취한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이 속여 취함으로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 존슨의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⁷³⁾ 여호수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문제이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교회의 죄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죄가 문제이다.

처벌 시행 주체도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주체라 할 수 있다. 여호수아 7장의 첫째 죽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고 둘째 죽음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⁷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베드로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선언하기는 했으나 처벌 시행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심판 기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⁷⁵⁾ 그러므로 아간과 삽비라의 죽음 모두 하나

72) Trocmé, *Livre*, 198.

73) Johnson, *Acts*, 92.

74) Derrett, “Ananias,” 198.

75) Gerd Theissen, *The Miracle Stories of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Francis McDonagh, trans. (Edinburgh: Clark, 1983), 109; Havelaar, “Parallels,” 63-64. 한편 데렛(Derrett, “Ananias,” 197-198)은 그들의 죽음을 ‘심장마

님이 주체이며 공동체는 심판 진행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존슨의 지적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공동체가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⁷⁶⁾ 죄의 지적, 자백할 기회의 제공, 죽음 예언, 장사지내는 것 모두 공동체에서 한 역할이다. 또한 아간과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두 죽음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점과 삽비라와 관련하여 제비뽑는 일은 없으나 진위를 묻는 질문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범죄자를 찾거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형이 집행되는 모습을 사도행전 5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⁷⁷⁾ 트로흐메의 주장도 지나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간과 삽비라를 비교하고 아간의 태도와 대답에서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드로와 대면해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증언한다.”는 존슨이 지적하는 차이점⁷⁸⁾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트로흐메와 존슨이 강조하는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사이의 차이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오히려 유사점이 더욱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두 본문 간의 차이점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대행자의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를 바로 인식한다. 이는 어쩌면 터너(Max Turner)가 지적하듯이 “성령에 의해 주어진 계시의 분별력” 때문에 생긴 차이일 수 있다.⁷⁹⁾ 베드로는

비'로 설명한다.

76) Johnson, *Acts*, 92.

77) Trocmé, *Livre*, 198.

78) Johnson, *Acts*, 92.

79) Max Turner, *Power from on High: The Spirit in Israel's Restoration and Witness in Luke-Act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Supplement Series 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407.

마치 이스라엘의 죄를 바로 아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나니아의 죄를 바로 알고 지적한다.

둘째, 처벌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헤렘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수 7:12),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헤렘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아간과 그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만 헤렘시키도록 명하신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36명이 전사했을 뿐이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처벌 대상의 축소에 대해 카민스키(Joel S. Kaminsky)는 헤렘에 의한 이스라엘의 오염 정도가 낮았다고 주장하지만⁸⁰⁾ 이는 본문에서 근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출애굽기 32:1-34:10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의 처벌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헤렘시키라는 율법이 언약의 내용으로 주어졌음에도(출 22:20)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지은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이다(32:8). 출애굽기 22:20에 따르면 모두가 헤렘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즉 나대오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המ)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32:10)고 말씀하신다. 헤렘 대신 다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모벌리(R. W. L. Moberly)는 “비상구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⁸¹⁾ 이스라엘과의 언약 재 체결 전, 하나님이 “인자가 크신”(הגדל-הגדל)⁸²⁾ 분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당위적인 헤렘의 구속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처벌 대상의 축소의 이유도 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⁸³⁾

80) Kaminsky, “Joshua,” 339.

81) R. W. L. Moberly,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JSOTSup 22 (Sheffield: JSOT, 1983), 50.

82) 구약에서 이 표현은 다음에서 나온다. 출 34:6; 민 14:18; 시 86:5, 15; 103:8; 율 2:13; 은 4:2.

83) הרה 본문과 관계하여 ‘은혜’(הרה)라는 단어는 다음에서 쓰인다. 신 7:9, 12; 수 2:12 (2x), 14; 삿 1:24; 삼상 15:6; 대하 20:21; 사 16:15; 40:6; 54:8,

여호수아 7장에서는 처벌 대상이 축소된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는다. 왜 여호수아 7장이나 출애굽기 32-34장의 은혜가 사도행전 5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4:33)라는 표현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처벌 내용이 축소될 여지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6.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이 헤렘인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을 여러 모양으로 연결하여 보았다. 이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을 헌물로서의 헤렘 즉,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자발적 헤렘과 연결가능한지 살펴보자.

우선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구별하여 드린 헤렘이다(수 6:19, 24). 아간이 취한 것은 자발적으로 구별했어야 했던 헤렘 중에서 취한 것이다. 한편 아나니아가 드린 예물이 자발적인 예물이라는 데에는 학자들도 동의한다.⁸⁴⁾ 그런데 아나니아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사도행전 4:32에 보면,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고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예물을 놓았다는 것은(4:35, 37; 5:2)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 또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도(5:4) 아나니아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점을 지지한다. 사도들의 발 앞에 예물을 놓는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든⁸⁵⁾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

10; 55:3; 57:1; 63:7 (2x).

84) 참고, Brian J. Capper, “Interpretation,” 122; Haenchen, *Acts*, 240.

는 표현을 통해 사도들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사도들을 주님께 드린 예물을 처리할만한 주님의 대행자로 보았음에 분명하다. 여호수아 3-4장에서도 여호와와 케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주님의 대행자로서의 그들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강조된다(3:13, 15; 4:9, 18).

다음으로 아간과 삽비라의 죽음이 그들의 예물을 생각나게 한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한 것과 함께 불에 태워지는데(수 6:24; 7:25 하) 이는 불에 살라진 다른 헤렘을 기억하게 하는 처리 방법이다. 특별히 그가 취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불에 살라졌어야 했던 것인데 취해졌고 후에 아간과 함께 살라진다. 삽비라 역시 아나니아가 드린 돈처럼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진다(5:10).⁸⁶⁾

또한 사도행전 4:34-5:8에 있는 예물들의 종류는 레위기 27:28(LXX)에 있는 자발적 헤렘의 종류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⁸⁷⁾ 바나바가 드린 ‘밭’(ἀγροῦ, 행 4:37)은 자발적 헤렘의 종류 중 하나이다(‘기업의 밭’, ἀγροῦ κατασχέσεως αὐτοῦ, 레 27:28). 그런데 레위기 27장에서 ‘밭’이라는 단어는 ‘집’(οἰκίαν, 14절)과 ‘밭’(ἀγροῦ, 16, 28절)을 포괄하는 어휘로 사도행전 4-5장의 ‘밭과 집’(χωρίων ἢ οἰκιῶν, 4:34), ‘밭’(ἀγροῦ, 4:37), ‘소유’(κτῆμα, 5:1)와 ‘땅’(χωρίου, 5:3, 8)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자발적 헤렘과 관계된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자발적 헤렘은 일단 한 번 드러지고 나면 팔지도 바꾸지도 대속하지도 못한다(레

85) Luke Timothy Johnson,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SBLDS 39 (Missoula: Scholars, 1977), 201; Catherine M. Murphy, *Wealth in the Dead Sea Scrolls and in the Qumran Community*, STDJ 40 (Leiden: Brill, 2002), 75 n. 126 참고.

86) Witherington, *Acts*, 219.

87) 누가에게 있어서 칠십인역이 중요한 번역본일수록 이 근거는 중요한 논거가 된다.

27:28-29).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도 이와 비슷한 주제를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발적 헤렘을 취하면 당위적 헤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사건이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이 드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됨으로 이와 비슷한 주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을 일종의 자발적 헤렘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결론은 누가행전에서 헤렘과 관계된 요소를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의미 있게 될 것이다.⁸⁸⁾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앞의 결론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한 카퍼의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이나⁸⁹⁾ 헬라 공동체와 연결하려는 하벨라의 강조점⁹⁰⁾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결론이다.

7. 제안된 여러 관련 본문들에 대한 평가

사도행전 5:1-11과 여호수아 7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자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5:1-11의 배경으로 레위기 10:1-6, 열왕기 상 14:1-18, 1QS 6.13-25, 『수산나』 45, 52-59와 같은 본문들을 제안한다. 각각을 살펴보자.

88)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잘못된 취급,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것 등과 이 결론을 연결해 볼 수 있다.

89) Capper, “Interpretation,” 120: “First, Ananias has made no commitment forfeiting title to the property prior to laying it at the apostles’ feet. Secondly, while Ananias’ crime may have involved pretence—it certainly involved pretending—he must have broken some fairly definite undertaking to hand in all the proceeds of the sale.” 카퍼는 이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사도행전 5:1-11과 콤란 문헌을 연결한다.

90) Havelaar, “Parallels,” 64. 그는 ‘심판 기사’와 ‘제명’을 중요한 두 요소로 본다. 헤렘 개념으로 두 요소 모두 설명할 수 있다.

7.1. 레위기 10:1-6

데렛은 장례가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사도행전 5:1-11과 레위기 10:1-6을 연결하면서 “교회가 쉬키나를⁹¹⁾ 모시는 새 성전이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우매한 아론의 아들들의 행동과 같다.”고 말한다.⁹²⁾ 바이저도 아론의 아들들이 특이하게 죽은 점을 들어 레위기 10:1-6과 사도행전 5:1-11을 연결한다.⁹³⁾

나답과 아비후가 특이하게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죽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다르다.

	나답과 아비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직분	하나님의 대행자인 제사장	믿는 무리의 일원
죽음	여호와 앞에서(2절)	주의 대행자들 앞에서
죄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죄(1절)	거짓말 한 죄, 하나님의 것을 취한 죄
애곡	친척들과 백성들이 애곡이 기대됨(6절)	애곡의 언급 없음

그러므로 여호수아 7장보다 더 나은 평행 본문으로 보기 힘들다.

7.2. 열왕기 상 14:1-18

죽음이 발생하기 전에 예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열왕기 상 14:1-18은 사도행전 5:1-11과 연결할 만하다.⁹⁴⁾ 선지자 아히야의 예

91) Joseph Dan, “Shekhinah,” *EncJud* 14, 1349-1354 (1349): “Shekhinah (Heb. שְׁכִינָה; lit. ‘dwelling,’ ‘resting’), or Divine Presence, refers most often in rabbinic literature to the numinous immanence of God in the world.”

92) Derrett, “Ananias,” 201; Witherington, *Acts*, 214, 217.

93) Weiser, *Apostelgeschichte*, 140; Fitzmyer, *Acts*, 319.

언이 있는 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는다(17절).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변장한 후, 선지자에게 가서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주고 아들에 대해 묻기를 청한다(2-3절).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아내의 의도와 그들에게 할 말을 선지자에게 알려 주셨고(5절) 선지자는 알려 주신대로 대답한다(6-16절).

여로보암의 아내의 변장은 거짓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선지자의 예언이나 변장, 아이의 죽음 등 유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그 아이는 어머니의 변장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둘째,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이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닐뿐더러 이 아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된다(13절). 셋째, 이 아이가 죽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한다(18절 상).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을 생각할 때, 열왕기상 14:1-18은 사도행전 5:1-11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7장보다 낫다고 보기 힘들다.

7.3. 1QS 6.13-25

쿠파 공동체의 규칙 중 1QS 6.13-25의 관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는 카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신자들이 재산을 드러야 들어갈 수 있는 “내부 그룹” 혹은 “재산 공동체”가 있다고 가정한다.⁹⁵⁾ 카퍼에 따르면 베드로의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94) Weiser, *Apostelgeschichte*, 140; Fitzmyer, *Acts*, 319.

95) Brian Capper, “The Palestinian Cultural Context of Earliest Christian Community of Goods,” Richard Bauckham, ed.,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Grand Rapids: Eerdmans, 1995), 323-356, 337-338. 카퍼는 Schmitt와 Trocmé를 따른다.

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행 5:4)라는 표현 중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신자의 초기 훈련 기간으로 재산을 귀속시키기 전 상태를 가리키고, ‘판 후에도’ 아나니아가 땅을 임의로 할 수 있음은 그가 여전히 수습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⁹⁶⁾ 더 나아가 카퍼는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돈을 내놓은 후에도 돈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아나니아에게 있으며 그가 원한다면 돈을 다시 취한 후, ‘엡센파’(the Essenes)나 ‘피타고라스파’(the Pythagoreans)에서 행하던 것처럼,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⁹⁷⁾

정말 카퍼의 말처럼 돈이 여전히 아나니아에게 귀속되어 있고 그가 원한다면 되찾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나니아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죽음일 수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5:1-11의 내용이 쿵란 공동체의 규칙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먼저 1QS 6.13-25와 사도행전 4:32-5:11 사이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⁹⁸⁾ 쿵란 공동체에는 처음 입회할 때(6.14-15)와 입회 후 일년이 지났을 때(6.17) 그리고 이 년이 지났을 때(6.21), 각각 심사가 있다.⁹⁹⁾ 정식 회원이 되기 전 세 번의 심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사 사이에 수련생은 자신의 재산을 심사관에게 가져와서 등록하게 되는데 비록 등록은 하지만 수련생의 재산이 공

96) Capper, “Palestinian,” 339.

97) Capper, “Interpretation,” 125-127.

98) 헨헨(Haenchen, *Acts*, 241)은 베드로의 역할과 심판의 정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카퍼의 견해에 대해 아스코프(Ascough, “Benefaction,” 95)는 여러 면에서 의심을 표한다. 그는 초대 교회에 견습 기간은 없었고 ‘내부 그룹’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동체를 속인 경우의 처벌 정도에 대해서도 두 공동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99) James H. Charlesworth, ed., *Dead Sea Scrolls* 2,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ead Sea Scrolls Project (Tübingen: J. C. B. Mohr, 1995), 28-29을 보라.

동체에 의해 사용되지는 않는다(6.20). 마지막 심사 후, 수련생에게는 등급이 주어지고 그의 재산은 공동체로 귀속되게 된다(6.22). 하지만 사도행전 4:32-37뿐만 아니라 5:1-11을 보면, 이러한 과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자에 대한 심사, 신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 신자의 등급을 정하는 일, 신자들의 모든 재산을 일괄적으로 공동체에 귀속시키는 일은 없다. 더욱이 사도행전 어디를 보아도 ‘내부 그룹’이나 ‘재산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¹⁰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체 구성원은 “믿는 무리”(4:32)로 불릴 뿐이다.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콤파 공동체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수련과 재산 귀속의 관점에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4:35)의 표현을 볼 때 아나니아가 자신이 드린 돈을 다시 찾아가갈 수 있다고 하는 카퍼의 말은 사도행전 본문과 맞지 않다. 베드로가 5:4에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한 것도 어떤 수련생의 단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아나니아가 그 돈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임에도 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느냐는 의미의 말일 것이다.

재산을 속여 등록한 경우 콤파 공동체에서는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 1QS 6.24-25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귀속할 때 속인 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일 년 동안 정결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일종의 수찬 정지) 매일의 식사량도 4분의 3으로 감한다. 카퍼는 콤파 공동체 안에서 귀속 재산을 속인 경우 처벌이 이처럼 가벼운 것

100) 카퍼(Capper, “Palestinian,” 338 n.46)는 사도행전 5:6, 10의 ‘젊은 사람들’을 ‘수련생’으로 본다. 하지만 이 단어는 여호수아 2:1 (2x), 23; 6:21, 22, 23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공동체 안의 젊은 사람들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을 알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콤란 공동체와 연결한다.¹⁰¹⁾ 그러나 일 년간 먹는 것을 제한받는 것과 죽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콤란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가하는 가장 심각한 처벌은 ‘공동체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1QS 7.1-2, 16-17, 24; 9.1).¹⁰²⁾

위와 같은 차이점들을 볼 때, 콤란 공동체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는 일,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콤란 공동체 규례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7. 4. 『수산나』 45, 52-59

페쉬는 『수산나』 45, 52-59를 사도행전 5:1-11과 연결한다.¹⁰³⁾ 그의 시도는 두 장로의 죽음에 대해 당위적 헤렘과 연결할 가능성이 있기에 의미가 있다. 연결을 가능케 하는 첫째 이유는 그들의 죽음을 ‘엑스올레쓰류오’(ἐξολεθρεύω)란 단어로 묘사하는 점이다. 칠십인역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헤렘을 번역하는 데 23회 사용된 단어로 헤렘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특히 테오도시온(Theodotion) 판은 다른 사본에 비해 하나님의 천사를 멸하는 자로 소개함으로써 두 장로의 죽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간섭하실 것임을 강조한다. “칼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둘로 쪼개어 너희들을 멸할 것이다”(ἄγγελος τοῦ θεοῦ τὴν ῥομφαίαν ἔχων πρίσαι σε μέσον ὅπως ἐξολεθρεύση ὑμᾶς).

둘째로 테오도시온 판에는 두 장로에 대해 ‘시돈 사람처럼’[‘호스 시도노스’(ὡς Σιδωνός)]이란 표현 대신 ‘가나안 자손’[‘스페르마 하나안’(σπέρμα Χαναα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¹⁰⁴⁾ 그들을 가나안 사

101) Capper, “Palestinian,” 340.

102) 참고, Havelaar, “Parallels,” 76, n.41, 82.

103) Pesch, *Apostelgeschichte*, 196-197.

람들과 동일시 함으로써 장로들을 죽이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당위적으로 해렘시키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천사들은 두 장로를 ‘골짜기’[‘파랑가’(φάραγγα)]에 던지고 그들 위에 ‘불’[‘핍르’(πῦρ)]을 던진다(1.62).¹⁰⁵⁾ 두 장로를 가나안 사람이라 부르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여기서 쓰인 ‘골짜기’와 ‘불’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골 골짜기’(φάραγγα Ἀχωρ, 7:24)와 ‘불로’(ἐν πυρί, 7:15)를 염두에 둔 표현이 아닌가 싶다.

이처럼 『수산나』에 나오는 두 장로의 죽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연결할 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수산나』에는 자발적 해렘을 취하면 당위적 해렘이 되는 것과 같은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해렘 본문보다는 신명기 19:18-19와 같은 거짓 증인에 대한 율법과 더 관계가 있는 것 같다.¹⁰⁶⁾

8. 결론

지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연관될만한 여러 본문들을 살펴 보았다. 새로이 제안되는 레위기 10:1-5, 열왕기 상 14:1-18, 1QS 6.13-25, 『수산나』 45, 52-29는 연관될만한 측면이 있으나 여호수아 7장보다는 덜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더불어 그 동안 연결 가능한 본문으로 생각되었다가 최근 무시되기 시작한 여호수아 7장

104) APOT I, 651: “that of Sidon,” Carey A. Moore, Daniel, *Esther and Jeremiah: The Additions*, AB (Garden City: Doubleday, 1977), 107; “You descendant of Canaan,” NEB, “Spawn of Canaan”; NRSV, “You offspring of Canaan”

105) 참고, David A. deSilva, *Introducing the Apocrypha: Message, Context, and Significance*, H. Charlesworth, forewor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232.

106) deSilva, *Apocrypha*, 234.

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이미 지적된 차이점들은 그리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은 자발적인 예물로 여러 면에서 자발적 헤렘과 연결할 만한 요소들을 내포한다. 둘째, 이스라엘과 아나니아를 비교하고 아간과 삽비라를 비교하면 아간과 삽비라 모두에게서 거짓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은 아나니아의 죽음과 연결하고, 아간과 그의 소유의 어려움은 삽비라의 죽음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하나님은 두 본문의 죽음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신다. 비록 여호수아와 베드로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죽음에 관여한 공동체의 모습에도 차이가 있으나 두 공동체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또한 앞 논의에서 보았듯이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5:1-11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이 있다. 구조상으로도, 주제적으로도 연결 가능하다. 두 본문 모두 죄, 첫 번째 죽음, 죄의 지적, 간격, 두 번째 죽음, 입장, 질문과 대답, 반응,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을 취할 경우 당위적인 심판 대상이 된다는 주제도 함께 나타난다.

한편 두 본문은 대행자의 능력과 처벌 범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은 하나님이 대행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차이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가 여호수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바로 알아차린 것 같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과 아간이 받은 은혜보다 더 컸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더 강한 심판이 적용된 듯 싶다.

이처럼 여호수아 7장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연관된 점이 많은 것을 고려할 때,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단순히 물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발적 헤렘의 개

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요어>

본문 간 상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헤렘

<Key Words>

Intertextuality, Ananias and Sapphira, Achan, Herem

참고문헌

- Ascough, Richard S., “Benefaction Gone Wrong: The ‘Sin’ of Ananias and Sapphira in Context,” Stephen G. Wilson and Michel Desjardins, eds., *Text and Artifact in the Religions of Mediterranean Antiquity*, Studies in Christianity and Judaism 9, Ontari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00, 91-110.
- Brekelmans, C. H. W., *De Herem in het Oude Testament*, Nijmegen: Centrale Drukkerij, 1959.
- Brown, F.,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6.
- Bruce, F. F.,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Acts: the English Text with Introduction, Exposition and Notes*, *New Lond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1954.
- Bruce, F. F.,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ird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
- Calvin, Joh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Joshua*, Henry Beveridge,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49.
- Capper, Brian J., “« In der Hand des Ananias . . . » Erwägungen zu 1 QS VI, 20 und der Urchristlichen Gütergemeinschaft,” *Revue de Qumran* 47 (1986), 223-236.
- Capper, Brian J., “The Interpretation of Acts 5.4,” *JSNT* 19 (1983), 118-131.
- Capper, Brian J., “The Palestinian Cultural Context of Earliest Christian Community of Goods,” Richard Bauckham, ed., *The Book of Acts in Its Palestinian Setting*, Grand Rapids: Eerdmans, 1995, 323-356.
- Charlesworth, James H., ed., *Dead Sea Scrolls 2*,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Dead Sea Scrolls Project, Tübingen: J. C. B. Mohr, 1995.
- Creach, Jerome F. D., *Joshua*, IBC, Louisville: John Knox, 2003.

- Dan, Joseph, "Shekhinah," *Encyclopaedia Judaica* 14, Jerusalem: Encyclopaedia Judaica, 1972, 1349-1354.
- Davies, Eryl W., *Numbers*,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5.
- Derrett, J. Duncan M., "Ananias, Sapphira, and the Right of Property,"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I, Leiden: Brill, 1977, 193-201.
- deSilva, David A., *Introducing the Apocrypha: Message, Context, and Significance*, James H. Charlesworth, forewor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Driver, S. R., *The Book of Leviticus: A New English Translation*, Leipzig: Hinrichs, 1904.
- Fitzmyer, Joseph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B 31, London: Doubleday, 1998.
- Fleming, Daniel E., "The Seven-Day Siege of Jericho in Holy War," Robert Chazan, William W. Hallo, and Lawrence H. Schiffman, eds., *Ki Baruch Hu: Ancient Near Eastern, Biblical, and Judaic Studies in Honor of Baruch A. Levine*, Winona Lake: Eisenbrauns, 1999, 211-228.
- Gaventa, Beverly Roberts, *The Acts of the Apostles*, ANTC, Nashville: Abingdon, 2003.
- Greenberg, M., "HEREM," *Encyclopaedia Judaica* 8, Jerusalem: Encyclopaedia Judaica, 1972, 344-355.
- Haenchen, Ernst, *The Acts of the Apostles: A Commentary*, Bernard Noble, et al.,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1971.
- Hamlin, E. John, *Inheriting the Lan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oshua*, I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 Harrison, Everett F., *Acts: The Expanding Church*, Chicago: Moody, 1975.
- Havelaar, Henriette, "Hellenistic Parallels to Acts 5.1-11 and the Problem of Conflicting Interpretations," *JSNT* 67 (1997), 63-82.
- Hawk, L. Daniel, *Joshua*,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and

- Poetry, Collegeville: Liturgical, 2000.
- Jervell, J., *Die Apostelgeschichte*, KEK 3,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98.
- Johnson, Luke Timothy, *The Acts of the Apostles*, SP 5, Collegeville: Liturgical, 1992.
- Johnson, Luke Timothy, *The Literary Function of Possessions in Luke-Acts*, SBLDS 39, Missoula: Scholars, 1977.
- Josephus, Flavius, *Josephus*, H. St. J. Thackeray, Ralph Marcus, and Louis H. Feldman, trans., vol. 10,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Heinemann/Harvard University Press, 1966-1996 (1926-1965).
- Kalisch, M. M., *A Historical and Crit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with a New Translation: אָרְבָּע־Leviticus II*, London: Longmans, 1872.
- Kaminsky, Joel S., “Joshua 7: A Reassessment of Israelite Conceptions of Corporate Punishment,” Steven W. Hollway and Lowell K. Handy, eds., *The Pitcher is Broken: Memorial Essays for Gösta W. Ahlström*, JSOTSup 19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315-346.
- Koehler, L., W. Baumgartner, and J. J. Stamm, trans. and 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4 vols, Leiden: Brill, 1994-1999.
- Lake, Kirsopp, and Henry J. Cadbury, *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Part I: The Acts of the Apostles*, F. J. Foakes Jackson and Kirsopp Lake, eds., vol IV: *English Translation and Commentary*, London: Macmillan, 1933.
- Menoud, Philippe H., “La Mort d’Ananias et de Saphira (Actes 5. 1-11),” Maurice Goguel, *Bibliothèque Théologie*, eds., *Aux Sources de la Tradition Chrétienne: Mélanges offerts à M. Maurice Goguel à l’Occasion de Son Soixante-Dixième Anniversaire*, Neuchatel: Delachaux et Niestlé, 1950, 146-154.

- Mitchell, Gordon, *Together in the Land: A Reading of the Book of Joshua*, JSOTSup 13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Moberly, R. W. L., *At the Mountain of God: Story and Theology in Exodus 32-34*, JSOTSup 22, Sheffield: JSOT, 1983.
- Moore, Carey A., *Daniel, Esther and Jeremiah: The Additions*, AB, Garden City: Doubleday, 1977.
- Murphy, Catherine M., *Wealth in the Dead Sea Scrolls and in the Qumran Community*, STDJ 40, Leiden: Brill, 2002.
- Nelson, Richard D., "Herem and the Deuteronomic Social Conscience," M. Vervenne and J. Lust, eds., *Deuteronomy and Deuteronomic Literature*, BETL 133,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39-54.
- O'Toole, Robert F., "'You Did Not Lie to Us (Human Beings) but to God' (Acts 5,4c)," *Bib* 76 (1995), 182-209.
- Park, Hyung Dae, *Finding Herem?: A Study of Luke-Acts in the Light of Herem*,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357, London/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7.
- Pesch, Rudolf, *Die Apostelgeschichte*, EKKNT 5, Zürich: Benziger, 1986.
- Roberts, Alexander, and James Donaldson, eds., *The Ante-Nicene Fathers: Translations of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A.D. 325*, American reprint of the Edinburgh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5-1987, 1989-1990.
- Schaff, Philip, (ed.), *A Select Library of the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 12, Grand Rapids: Clark, 1975.
- Schmitt, J., "Contribution à l'Étude de la Discipline Penitentielle dans l'Église Primitive," A. Dupont-Sommer, ed.,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Colloque de Strasbourg 25-27 Mai 1955*,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7, 93-109.
- Theissen, Gerd, *The Miracle Stories of the Early Christian Tradition*, Francis McDonagh, trans., Edinburgh: Clark, 1983.

- Thompson, J. A.,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London: IVP, 1974.
- Tigay, Jeffrey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 Trocmé, E., *Le « Livre des Actes » et l'Histoir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7.
- Turner, Max, *Power from on High: The Spirit in Israel's Restoration and Witness in Luke Acts*,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Supplement Series 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 Waltke, Bruce K.,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alton, Steve, "Acts: Many Questions, Many Answers," Scot Mcknight and Grant R. Osborne, eds., *The Face of New Testament Studies: A Survey of Recent Research*,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4, 229-250.
- Weiser, Alfons, *Die Apostelgeschichte: Dapitel 1-12*, ÖTK 5/1, Gütersloh Würzburg: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1.
- Wenham, Gordon J., *Number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OTC, Leicester: IVP, 1981.
- Witherington, Ben, III, *The Acts of the Apostle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Carlisle: Paternoster, 1998.
- Woudstra, Marten, H., *The Book of Joshua*,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1.

<초록>

헤렘의 관점에서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행 5:1-11)

-여호수아 7:1-26과 사도행전 5:1-11의 본문 간 상관-

박형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오랫동안 사도행전 5:1-11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여호수아 7장의 아간 이야기와 연결되어졌다. 하지만 트로흐메와 존슨이 두 본문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한 이후 많은 학자들은 둘 사이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더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경이 될 만한 다른 본문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트로흐메와 존슨이 지적하는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중요한 차이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약의 헤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예물에는 자발적으로 드러진 헤렘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또한 두 본문을 구조적으로, 주제적으로 분석할 때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 물론,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은 차이점도 있다. 하지만 두 본문 간 유사점이 많음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 7:1-26은 사도행전 5:1-11의 배경 본문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배경 본문으로 그간 제시된 레위기 10:1-5, 열왕기 상 14:1-18, 1QS 6.13-25, 『수산나』 45, 52-29는 연관될만한 측면이

있으나 여호수아 7장보다는 덜하다.

이처럼 구약의 헤렘 개념의 전체적인 구조를 기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아간 사건을 비교할 때, 사도행전 5:1-11을 통해 누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한 재물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에 대한 부분임을 엿볼 수 있다.

<Abstract>

Ananias and Sapphira in the Light of Herem

(Acts 5:1-11):

Intertextuality between Joshua 7:1-26 and Acts 5:1-11

Dr. Hyung Dae Park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Joshua 7, Leviticus 10:1-5, 1 Kings 14:1-18, and 1 QS 6.13-25 are thought of as an allusion of the event of Ananias and Sapphira in Acts 5:1-11. Which is the best candidate? After considering each of the passages, this article examines Joshua 7 and Acts 5:1-11 to see if there is another allusion between the two passages, which has not yet been pointed out.

In Joshua 7, we could not ignore the concept of herem, which can be defined as “separated from common use or contact to the Lord”, as an important element. What does Achan’s death mean in the light of herem? What background

does it have in terms of the Pentateuch? What kind of theme can we perceive in respect to his death? Does the concept and theme of herem reverberate in Acts 5:1-11? If we can find any connection of Acts 5:1-11 with Joshua 7 in relation to the concept and theme of herem, we may think about intertextuality between Joshua 7:1-26 and Acts 5:1-11 more than used to be regarded.

The author, first, tackles Trocmé and Johnson about their attempting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Achan story and the Ananias and Sapphira story, by insisting that those four differences they suggest are not true ones. Further, he develops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texts in the light of the herem concept found in the Old Testament. What is more, this work paves the way for proposing that the ethics of Luke-Acts may not be limited to the money matter but should be stretched to a kind of complete devotion.